

## 태도의 차원구조와 판단의 극화현상\*

이 수 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태도판단에서 사용하는 태도진술의 함축된 의미가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로 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두가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 I에서는 판단의 극화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판단연구들에서 제시된 태도 진술들이 기술차원에서 찬성쪽의 것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도진술들이 기술차원에서 양쪽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때, 판단의 극화에서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II에서는 판단의 극화가 태도진술의 구성에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판단자들의 차원분화 수준을 조작하여 재규명하였다. 이 실험에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판단자들은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단의 극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타인의 태도진술을 판단할 때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의 극화(polariz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극화현상은 판단자가 태도주제에 대한 태도진술들의 찬반 입장을 판단할 때 주어진 진술을 판단척도의 양극단에 속한 것으로 평정하는 현상이다. 찬성하는 진술은 극히 찬성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진술은 극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위(displacement)시키므로써 판단이 전반적으로 분극화하는<sup>\*</sup> 현상이다.

이 현상을 처음 밝힌 Sherif와 Hovland(1961)는 판단의 극화가 제시된 진술에 대한 판단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판단자가 주어진 진술을 찬성할 때는 그 진술내용을 자기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동화(assimilate)시키고, 반대할 때는 그 진술 내용을 자기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대비(contrast)시키므로써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에서 판

\* 이 연구의 자료제작에서부터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권순환, 신진호군에게 감사한다.

단자의 태도가 극단적일 수록 주어진 진술들에 대한 찬반입장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의 극화가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중립태도의 판단자는 주어진 진술들에 대한 찬반입장이 뚜렷치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극화도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화대비이론에서의 이 예언은 대학에서의 우정을 주제로 다룬 Manis(1960)의 태도판단 연구를 통하여 지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흑인의 사회적 지위(Zavalloni와 Cook, 1965), 환각제(Eiser, 1971), 및 낙태(Romer, 1983)를 주제로 한 태도판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판단자의 태도가 찬성일 때는 중립보다 판단이 극화하여 예언대로 나타나지만, 반대일 때는 중립보다 판단의 극화가 적게 일어나 예언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판단의 극화현상을 판단자의 지각에서의 변화로 설명한 동화대비이론과는 달리, 판단자가 판단척도(rating scale)에 부여하는 의미상의 차이로 해석한 Eiser(1971)는 Tajfel(1957)의 강조효과 이론을 도입하여 다시 이 문제를 도전하였다. 판단에서 제시한 진술들이 태도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의 진술문의 찬반입장을 초점차원으로, 각 진술들에 대한 판단자 자신의 찬반의사를 주변차원으로 보고, 이 두 차원이 서로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즉 판단의 극화를 초점차원에서의 판단이 주변차원에 의하여 강조(accentuate)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두 차원간의 상관은 극단적 태도를 가진 판단자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찬성태도에서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진술은 자기도 그 진술에 찬성을 하며, 반대하는 진술은 자기도 그 진술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주어진 진술의 찬반입장과 그 진술에 대한 판단자의 찬반입장간에 정적상관을 체험하게 되며, 또한 이와 똑같이 반대태도는 부적상관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중립태도에서는 주어진 진술의 찬반입장에 따른 판단자의 일정한 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차원간의 상관에 대한 체험도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극단적 태도의 판단자는 두 차원간의 상관에 대한 체험이 크기 때문에 판단의 극화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앞의 동화대비이론에서의 예언과 같은 것으로 판단의 극화가 찬성태도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립태도이며, 반대태도에서 가장 적게 일어난다는 연구의 결과들과 불일치한다.

그리하여 Eiser와 Mower-white(1974)는 성격 특성에서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구별한 Peabody(1967)의 견해를 도입하여, 태도판단에서 판단척도의 양극단을 명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들, 예컨대, 찬성-반대나 호의-비호의와 같은 용어들은 기술적 의미(찬성-반대)에서 뿐만 아니라 평가적 의미(긍정-부정)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판단자들은 찬성(반대)

을 반대(찬성)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후인의 지위'라는 주제에서 찬성은 긍정적인, 반대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판단자들이 인종편견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는 범위에서 그렇다. 따라서 찬성태도는 자기의 태도와 판단척도의 평가적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찬성하는 찬성진술은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자기가 반대하는 반대진술은 더욱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을 전위하는 반면에, 반대태도는 자기의 태도와 판단척도의 의미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찬성하는 반대진술은 덜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가 반대하는 찬성진술은 덜 찬성하는 것으로 전위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른의 권위' 주제의 진술들을 한번은 '공손하다-버릇없다' 척도에서, 다른 한번은 '과감하다-소심하다' 척도에서 판단을 시켰다. 그 결과, 어른의 권위를 찬성하는 판단자들은 전자의 척도에서 판단이 극화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판단자들은 후자의 척도에서 극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판단의 극화가 척도의 평가적 의미와 판단자의 태도가 일치할 때 일어난다는 그들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Romer(1983)는 Eis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판단척도를 명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들이 태도판단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사용한 용어들은 그것들의 평가적 의미가 판단자에 따라 안정된 의미를 갖는 것인 반면에, 전통적 태도척도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모든 판단자가 이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찬성일 때는 판단척도를 규정하는 두 용어중 '찬성'이 '반대'보다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반대태도일 때는 이것이 거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평가적 의미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불안정한 판단척도(찬성-반대)에서 Eiser와 그의 동료의 결과를 재검토하여 판단의 극화가 종래의 연구들처럼 찬성, 중립, 반대태도 순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강조효과이론은 전통적인 태도판단연구의 맥락에서 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Eiser와 그의 동료들이 이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그것이 Peabody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의 구별을 판단척도에서의 함축된 의미를 찾는 데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이 생각을 판단척도에 적용치 않고 판단에서 제시하는 태도진술들의 함축된 의미를 찾는 데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판단의 극화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판단척도의 양극단을 명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들은 종래의 태도척도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사실 '어른의 권위'라는 태도주제에 대한 태도진술들로 볼 수 있다. '공손하다'는 어른의 권위를 찬성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진술(P+), '버릇없다'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진술(A-), '과감하다'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진술(A+), ‘소심하다’는 찬성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진술(P-)이다. 여기서 Peabody의 분류에 따르면 주어진 진술내용이 주제를 찬성하는 것(P:공손하다·소심하다)인지 반대하는 것(A:과감하다·버릇없다)인가의 구분은 기술적 의미에 따른 분류가 되며, 주어진 진술 자체가 좋은 뜻을 함축한 긍정적 내용(+:공손하다·과감하다)인지, 나쁜 뜻을 함축한 부정적 내용(-:소심하다·버릇없다)인가의 구분은 평가적 의미에 따른 분류가 된다.

그런데 기존의 태도척도들에서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태도진술들을 분석해보면, 위의 네가지 종류의 진술 중에서 주로 두가지 종류의 진술만으로 구성되었다. 태도 주제를 찬성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진술(P+)과 부정적 진술(P-)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태도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의 기술적 의미, 즉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의 양극단을 다 함께 포괄하도록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각제’라는 주제에는 ‘환각제를 복용하는 것’(찬성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는 의미가 이미 그 주제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 주제가 지시적 의미에서 그와 대립되는 ‘환각제를 복용치 않는 것’(반대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주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술들은 오직 환각제 복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진술(P+)과 부정적으로 표현한 진술(P-)만으로 구성되기 쉽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태도진술들을 가지고 판단연구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판단자와 반대하는 판단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판단에 임하게 된다. 종래의 태도판단에서 판단자에게 행한 ‘지시’는 판단자의 태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판단에서 제시한 진술들이 태도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인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주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진술은 찬성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진술은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찬성하는 판단자와 반대하는 판단자사이의 입장의 차이가 야기된다. 찬성하는 판단자는 자신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판단에 임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판단자는 자신의 태도를 버려야만 판단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하는 판단자들이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를 따르려면, 평가적으로 좋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긍정적 진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대하는 바로 그 주제를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야 하며, 평가적으로 나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 진술에 대해서는 그 주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들이 긍정적 진술을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반대한 바로 그 주제가 긍정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되며, 또한 부정적 진술을 반대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반대한 그 주제가 부정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긍정적 진술은 그 주제를 반대하는 진술이 되어야 하며, 부정적 진술은 찬성하는 진술이 되어야 한다. 즉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찬성하는 판단자들에게서 긍정적 진술을 찬성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찬성한 그 주제에는 평가적으로 긍정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며, 부정적 진술을 반대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찬성한 그 주제에는 부정적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는 자기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태도판단에서 사용하는 주제가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한쪽 극단만을 대표하도록 설정되었을 때에는 판단자들이 자기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주제를 찬성하는 판단자들은 판단의 극화를 보이는 반면에 반대하는 판단자들은 판단의 역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태도의 주제가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반대쪽 극단을 대표하도록 설정이 되었을 때에는 위의 현상이 역전되어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의 극화도 뒤바뀔 것이다. 전자의 태도주제에서 판단의 극화를 보인 판단자는 후자의 주제에서는 판단의 역전을 보일 것이며, 전자에서 판단의 역전을 보인 판단자는 후자에서 판단의 극화를 보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실 험 I

### 방 법

태도진술의 선정 : 이 연구에서 다룬 태도주제는 ‘학교에서의 복장’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서로 대립되는 ‘교복착용’과 ‘사복착용’의 두가지 하위주제이었다. 이들 주제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90개의 태도진술을 제작하여 60명의 대학생을 피험자로 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 진술의 기술치(descriptive value)와 평가치(evaluative value)를 측정하였다. 기술치는 주어진 진술이 ‘교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 + 50)인지 ‘사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 - 50)인지를 100mm척도에서의 평정을 통하여 얻어졌으며, 평가치는 주어진 진술의 내용이 ‘좋은 현상’( + 50)인지 ‘나쁜 현상’( - 50)인지를 100mm의 척도상에서 평정토록하여 얻어졌다. 이들 측정치를 통하여 교복착용에서 긍정적 진술(P+)과 부정적 진술(P-) 및 사복착용에서 긍정적 진술(A+)과 부정적 진술(A-) 각 10개씩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에 제시된 진술들의 기술치와 평가치의 평균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p < .001$ 에서 0

으로부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1〉 교복착용과 사복착용에 대한 태도진술과 그들의 기술치와 평가치

|                | 기술치 | 평가치  |                | 기술치  | 평가치  |
|----------------|-----|------|----------------|------|------|
| P <sup>+</sup> |     |      | A <sup>+</sup> |      |      |
| 단정하게 보인다       | 36  | 38   | 미적 감각을 키운다     | - 32 | 12   |
| 추억거리가 된다       | 27  | 26   | 민주적이다          | - 23 | 23   |
| 탈선을 줄인다        | 28  | 29   | 성숙하게 보인다       | - 14 | 16   |
| 사치 풍조를 방지한다    | 32  | 31   | 자율성을 키운다       | - 22 | 22   |
| 소속감을 갖게 한다     | 31  | 18   | 사회와의 거리감을 줄인다  | - 20 | 14   |
| 예의 바르게 한다      | 25  | 30   | 해방감을 갖게 한다     | - 30 | 12   |
| 경제적이다          | 23  | 25   | 발랄하다           | - 21 | 19   |
| 일체감을 갖게 한다     | 35  | 28   | 선택이 다양하다       | - 37 | 16   |
| 빈부 차이를 줄인다     | 33  | 25   | 개성을 살려준다       | - 22 | 24   |
| 선후배를 식별해 준다    | 33  | 16   | 자유롭다           | - 24 | 29   |
| P <sup>-</sup> |     |      | A <sup>-</sup> |      |      |
| 활동이 불편하다       | 28  | - 13 | 탈선하기 쉽다        | - 24 | - 23 |
| 구시대의 유물이다      | 19  | - 10 | 학생이 전방져진다      | - 28 | - 25 |
| 제절에 맞출 수 없다    | 18  | - 12 | 신분을 망각하기 쉽다    | - 28 | - 22 |
| 단조롭다           | 34  | - 11 | 유행심리를 조장한다     | - 30 | - 16 |
| 졸업 후에 입을수 없다   | 27  | - 10 | 공부보다 멋에 신경쓴다   | - 28 | - 19 |
| 복종심을 조성한다      | 24  | - 23 | 학습분위기를 해친다     | - 18 | - 23 |
| 딱딱하다           | 16  | - 21 | 정신을 해이하게 한다    | - 17 | - 23 |
| 일체의 잔재이다       | 18  | - 17 | 허영심을 조장한다      | - 26 | - 22 |
| 개성을 죽인다        | 12  | - 31 | 범죄를 증가시킨다      | - 34 | - 31 |
| 구속감을 준다        | 17  | - 16 | 소비풍조를 조장한다     | - 15 | - 15 |

실험자료로 사용한 진술은 〈표 1〉의 진술 앞에 교복착용 진술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으면’ 혹은 ‘교복을’이란 말을 첨가시켰으며, 사복착용 진술에 대해서는 ‘사복을 입으면’ 혹은 ‘사복은’이란 말을 첨가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교복착용에 대한 진술과 사복착용에 대한 진술들이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서로 대립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복착용에 대한 진술과 사복착용에 대한 진술들을 가지고 각각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척도와 사복착용에 대한 태도척도를 Likert 방법으로 제작하여 앞의 예비조사 피험자들에게 실시한 결과, 두 태도 척도에서 얻어진 태도점수사이의 상관인  $r = -.78$ 이 나와 두 종류의 태도진술들이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과제의 제작 : 위에서 제작한 태도진술들을 가지고 두가지 판단과제를 제작하였다. 교복착용 주제에서 20개의 교복착용 진술을 판단하는 과제와 사복착용 주제에서 20개의 사복착용 진술을 판단하는 과제였다. 두 과제에서 지시는 ‘아래에서는 교복착용(사복착용)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여러가지 의

견을 제시하였다. 여러분은 이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평소에 교복착용(사복착용)을 찬성하는 사람인지 반대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은 반대(-7), 중립(0), 찬성(+7)의 15점 척도에서 이루어졌다. 두가지 과제의 제시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두가지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한 질문지는 교복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다른 질문지는 사복주제를 먼저 제시하였다. 또한 태도진술들의 순서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의 제시순서를 -+ +- -+ +- -+ +- -+ +- -+ +-로 하여 두 판단과제에서 똑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피험자의 태도분류 :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교 학생 14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응답에 누락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 14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판단과제에 임하기 전에, 피험자들로부터 교복과 사복착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 질문은 사복착용지지(-7), 모르겠다(0), 교복착용지지(+7)까지의 15점 척도에서 자신의 태도를 표시토록 하였다. 이 반응을 가지고 피험자들을 사복지지 집단(-3~-7), 중립집단(-2~+2), 교복지지집단(+3~+7)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선별절차에 따라 피험자들은 사복지지 54명, 중립 30명, 교복지지 56명으로 나뉘었다.

### 결과 및 논의

<표 2>는 교복착용과 사복착용의 두 주제에서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각 주제에서 긍정적 진술 10가지와 부정적 진술 10가지를

<표 2> 교복착용과 사복착용 주제에서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의 평균

| 태도         | 태도진술    |       |         |       |
|------------|---------|-------|---------|-------|
|            | 교복착용(P) |       | 사복착용(A) |       |
|            | 긍정(+)   | 부정(-) | 긍정(+)   | 부정(-) |
| 사복지지(n=54) | 9.15*   | 8.66  | 11.94   | 6.71  |
| 중립(n=30)   | 11.60   | 8.58  | 11.76   | 8.38  |
| 교복지지(n=56) | 13.02   | 7.05  | 10.29   | 9.67  |

\* 점수가 클수록 태도진술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다. 표에서 제시한 점수는 원래 -7에서 +7까지의 척도상의 점수이지만 편의상 1에서 15까지의 점수로 환적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점수가 클수록 주어진 진술이 주제를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표에서 먼저 판단의 극화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태도

의 주제가 기술차원의 한쪽 극단만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차원에서 서로 대립하는 교복착용과 사복착용 진술들에서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교복과 사복의 두 진술에서의 점수를 합하여 긍정진술과 부정진술의 차이를 태도집단에 따라 내어 본 결과,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의 극화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137) = 1.92, p > .1$ ). 그러나 교복진술에서의 판단과 사복진술에서의 판단을 분리하여 분석하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판단자의 태도의 영향이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두 주제에서 모두 판단자의 태도가 찬성일 때 판단이 가장 극화하며, 반대일 때 가장 중립화하고 있다. 교복진술에서 교복지지태도는 사복지지태도보다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의 차이를 크게 평정하고 있다( $F(2,274) = 24.6, p < .001$ ). 반면에 사복진술에서는 사복지지태도가 교복지지태도보다 판단이 더욱 극화되고 있다( $F(2,274) = 12.66, p < .001$ ).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태도의 주제 선정이 기술차원의 어느 한 쪽만을 대표하도록 되었을 때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에서의 극화의 차이가 야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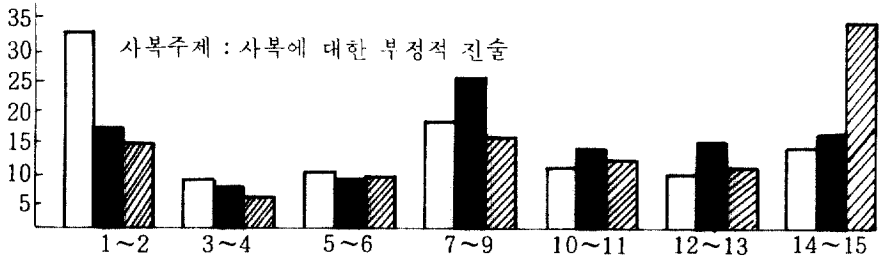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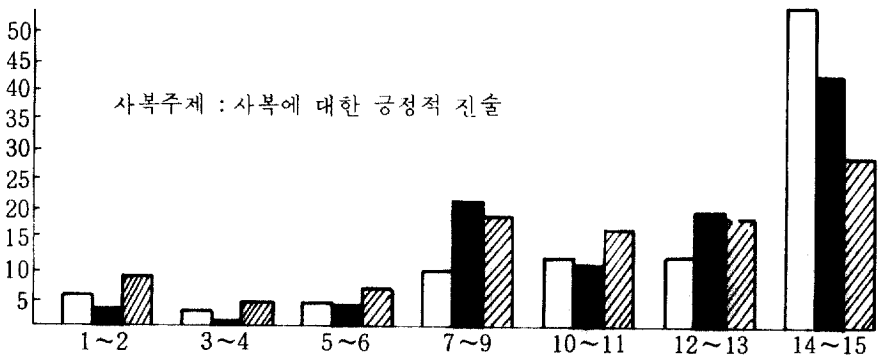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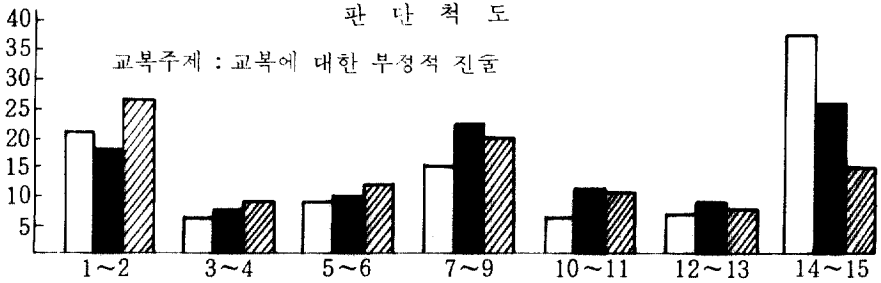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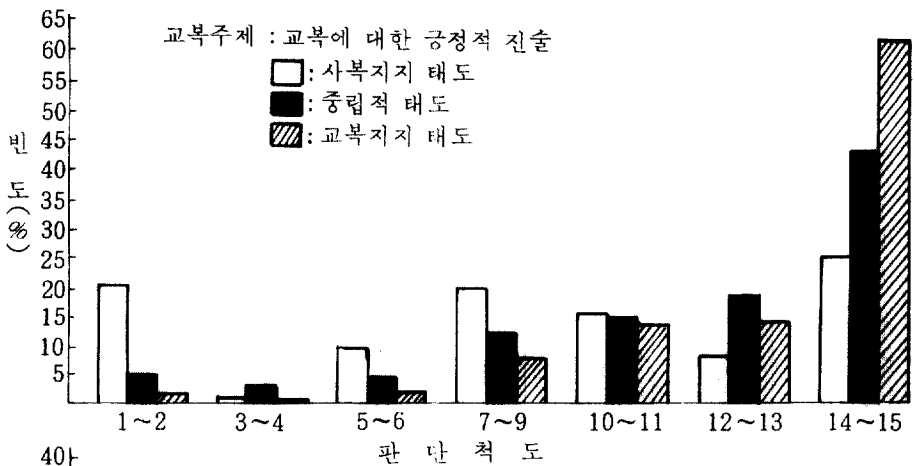
이 결론은 판단자의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진술의 평가적 의미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F(2,137) = 31.65, p < .001$ ). 판단의 극화에 대한 판단자의 태도의 영향은 선정된 태도진술이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어느 쪽을 대표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복지지 태도는 교복진술에서는 판단이 극화하지만, 사복진술에서는 판단이 중화하며, 반면에 사복지지 태도는 사복진술에서는 판단이 극화하지만 교복진술에서는 판단이 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판단의 극화현상이 판단자의 태도에서 비롯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주어진 태도진술이 기술차원의 어느 한 쪽만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선정된 태도진술들이 기술차원에서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이들 진술을 대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야기된다. 찬성태도를 가진 판단자가 긍정적 진술을 찬성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찬성하는 주제에는 평가적으로 긍정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며, 부정적 진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찬성하는 주제에는 부정적 내용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긍정적 진술은 주어진 주제를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부정적 진술은 더욱 반대하는 것으로 전위시켜 판단의 극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반대태도를 가진 판단자가 긍정적 진술을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바로 그 주제에는 긍정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며, 부정적 진술을 반대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그 주제에는 부정적 내용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긍정적 진술은 그 주제를 반대하는 진술이 되어야 하며, 부정적 진술은 찬성하는 진술이 되어야 한다. 즉 실험에서 요구하는 판단과는 반대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찬성태도는 판단의 극화를 그리고 반대태도는 판단의 역전을 보일 것이라는 위의 생각을 보다 주의깊게 검토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의 반응을 평균으로 묶지 않고 판단척도의 범주에 따라 피험자들의 반응빈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1)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평정척도 범주별로 반응빈도를 구한 것이다. 여기서 반응빈도는 전체 반응빈도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판단척도 범주는 두개씩 묶어서 제시하였으며 범주의 숫자가 클수록 찬성을 나타낸다. 그림의 교복주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사복지지 태도에서 판단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복지지태도는 긍정적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부정적 진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교복지지태도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복주제에서는 교복지지태도에서 판단의 역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진술에서는 교복지지 태도에 따른 판단의 역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으나, 부정적 진술에서는 교복지지 태도에서 판단의 역전을 크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반대 태도를 가졌을 때 판단의 역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판단의 역전이 대체로 긍정적 진술에서 보다는 부정적 진술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진술에서의 반응분포의 모양은 J형보다는 U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쌍봉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정적 진술에서는 주제와 태도가 일치하는 경우, 즉 교복주제에서 교복지지 태도나 사복주제에서 사복지지 태도에서도 판단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교복지지 태도(사복지지 태도)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신념이 교복(사복)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며, 부정적 신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의 태도를 지지해 주는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의 태도를 반박하는 진술에 비하여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을 높게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복지지 태도(사복지지 태도)에서 교복(사복)에 대한 부정적 진술은 긍정적 진술에 비하여 그 진술에 대한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이 낮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 진술에서 판단의 역전 현상이 보다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필자(1984)는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이 낮은 태도진술에서 이 값이 높은 진술에서보다 판단의 역전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반대태도에서의 판단의 역전 현상은 Romer(1983)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그는 반대태도를 가진 판단자의 판단이 중화하는 것은 이들 판단자들이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야기되



(그림 1) 교복착용과 사복착용 주제에서 척도범주별 반응빈도

는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판단자는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주어진 진술이 태도주제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어진 진술에 대하여 판단자 자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태도를 가진 자는 긍정적 진술은 ‘반대하는 것’으로 부정적 진술은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단의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판단자가 많을 때 제대로 한 판단과 꺼꾸로 한 판단의 반응분포가 쌍봉분포를 이루게 되어 판단의 증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같은 생각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판단자들이 실험의 지시를 잘 못 이해하였다는 것은 실험자의 실험조작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판단의 극화현상을 실험자의 실험조작에서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그동안 수행한 수 많은 실험에서 이 현상이 너무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실험자들이 모두 실험조작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대부분의 판단자들은 실험에서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판단에 임하는 데 일부 판단자들은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들 판단자들은 실험자의 지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일부 판단자 중에는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제시하는 지시에는 판단자가 주어진 태도진술에서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시에 따르면 태도진술의 평가적 의미는 그 진술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어진 진술이 평가적으로 긍정적이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사복진술이라면 교복주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며, 부정적이라도 그것이 사복진술이라면 교복주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단자 중에는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독립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들은 자기가 반대하는 태도주제(교복착용)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고 긍정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찬성하는 주제(사복착용)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고 부정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교복착용인가 사복착용인가)와 평가적 의미(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가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상관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태도진술에서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리하여 지각할 수 없으며, 실험자가 지시를 통하여 그것을 하도록 강요해올 때 이들은 그 지시를 주어진 진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묻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실험Ⅱ에서는 일부 판단자에게서 나타나는 판단의 역전 현상이 실험자의 실험조작상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자들이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

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인지를 밝히려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교복착용과 사복착용 진술에서 기술과 평가의 두 속성에 대한 판단자들의 분화수준을 측정하여 두 차원의 분화수준이 낮은 판단자에게서 판단의 역전이 보다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 실 험 II

### 방 법

피험자: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교 학생 22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두번에 걸친 실험에 모두 참여치 않은 15명을 제외하여 21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태도 및 분화수준의 측정: 여기서 다룬 태도주제는 교복착용과 사복착용으로 실험 I 과 동일하였다. 피험자의 태도측정도 실험 I 과 같게하여 사복착용지지(-7)부터 교복착용지지(+7)까지의 15점 척도에서 사복지지집단(-3~-7), 중립집단(-2~+2), 교복지지집단(+3~+7)의 세 집단으로 피험자들을 분류하였다.

피험자의 기술과 평가차원에서 분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지각에서 발전된 Shepp와 Swartz(1976)의 기법을 사회지각에 도입한 이수원과 신현숙(1986)의 분화수준 측정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앞의 <표 1>에 제시된 교복진술과 사복진술들 중 각각 2개씩을 뽑아 4개를 한 조로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나서, 이들 중 '교복착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2개와 사복착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2개를 분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두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었는데, 차원상관과제는 태도진술의 기술적 속성과 평가적 속성이 서로 상관이 되도록 진술들을 구성함으로써 기술과 평가의 두 차원을 독립적으로 분화하여 지각할 수 없는 피험자라도 이 과제는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표 1>의 P+(P-) 진술 2개와 A-(A+) 진술 2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예컨대, '단정하게 보인다'(P+), '일체감을 갖게 한다'(P+), '탈선하기 쉽다'(A-), '허영심을 조장한다'(A-)의 4가지 진술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차원직교과제는 태도진술의 두가지 속성이 서로 교차되도록 하여 기술과 평가의 두 차원을 동시에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는 피험자만이 이 과제를 옳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표 1>의 P+진술 1개, P-진술 1개, A+진술 1개, A-진술 1개씩 4개의 진술로 만들어졌다. 예컨대, 이 과제는 '단정하게 보인다'(P+), '활동이 불편하다'(P-), '개성을 살려준다'(A+), '탈선하기 쉽다'(A-)의 4가지 진술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이들 중 교복착용에서 나타나는 현상 2개와 사복착용에서 나타나는 현상 2개를 고르

게 하였다. 이같은 과제를 차원상관과제와 차원지교과제에서 각각 8개씩 모두 16개를 만들어 이들을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피험자들의 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분화수준의 측정은 차원지교과제에서 범한 오류수에서 차원상관과제에서 범한 오류수를 빼어 이 값이 클 때 분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오류란 <표 1>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교복진술과 사복진술을 묶지 않았을 때, 즉 교복진술을 사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묶는다든지 혹은 이와 반대로 묶는다든지 할 때 이를 모두 오류로 간주하였다.

절차: 이 실험은 일주간격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처음 조사에서는 피험자들의 태도와 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피험자들을 그들의 태도에 따라 세 집단, 사복지지, 중립, 교복지지로 나누고, 또한 각 태도집단에서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2차 실험은 실험 I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판단과제를 같은 피험자들에게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교복주제를 먼저 받고 이어서 사복주제를 받은 집단과 이와 반대 순서로 받은 집단이 나뉘어 과제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시켰다. 실험에서 제시한 지시나 절차는 실험 I과 동일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표 3>에서 교복과 사복착용에 대한 태도진술들의 판단결과를 판단자의 태도와 분화수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각 주제에서 긍정적 진술 10가지와 부정적 진술 10가지를 합하여 평균을 내었다. 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원래 -7에서 +7까지의 척도상의 점수를 편의상 1에서 15까지의 점수로 환제한 것이

<표 3> 판단자의 태도와 분화수준에 따른 태도진술의 판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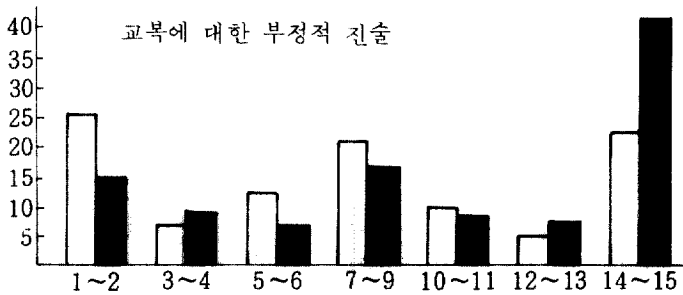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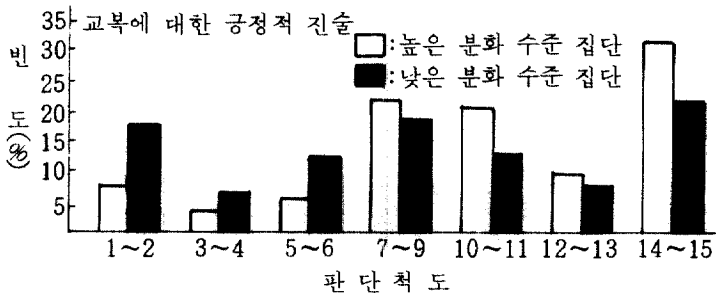
| 태도            | 태도진술    |       |         |       |
|---------------|---------|-------|---------|-------|
|               | 교복착용(P) |       | 사복착용(A) |       |
|               | 긍정(+)   | 부정(-) | 긍정(+)   | 부정(-) |
| 사복지지          |         |       |         |       |
| 높은 분화수준(n=30) | 10.24*  | 7.72  | 11.56   | 7.01  |
| 낮은 분화수준(n=21) | 9.13    | 9.80  | 11.39   | 4.27  |
| 중립            |         |       |         |       |
| 높은 분화수준(n=26) | 11.34   | 7.76  | 10.44   | 8.70  |
| 낮은 분화수준(n=16) | 11.52   | 8.69  | 8.86    | 7.99  |
| 교복지지          |         |       |         |       |
| 높은 분화수준(n=62) | 12.73   | 6.77  | 10.70   | 9.01  |
| 낮은 분화수준(n=56) | 12.61   | 6.80  | 8.64    | 8.81  |

\* 점수가 클수록 태도진술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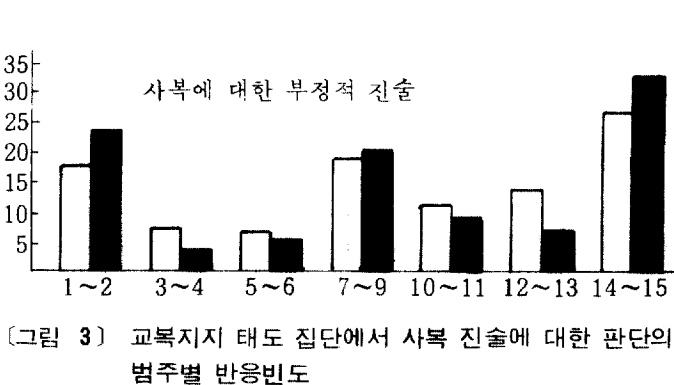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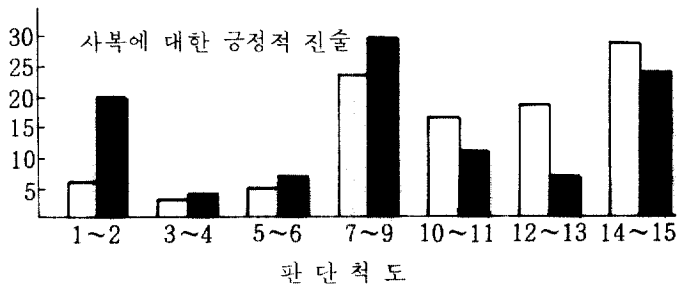
다. 점수가 클수록 주어진 진술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표를 보면 먼저 실험 I에서 나왔던 결과, 즉 교복지지 태도는 교복주제에서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간의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판단의 극화를 보이는 반면에 사복지지 태도는 사복주제에서 판단의 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판단자의 태도×진술의 기술적 속성×진술의 평가적 속성의 삼원 상호작용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2,207)=29.46, p<.001$ ].

판단자의 차원분화 수준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하여 교복주제와 사복주제의 결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복진술에서 판단자의 태도×판단자의 분화수준×진술의 평가적 속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 $F(2,207)=4.19, p<.05$ ].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전형적인 판단의 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 경향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자의 분화수준에 따라 낮은 분화수준은 높은 분화수준에 비하여 사복지지 태도에서는 판단의 극화를, 교복지지 태도에서는 판단의 중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교복주제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복지지 태도에서는 예상대로 낮은 분화수준이 높은 분화수준보다 판단의 중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복지지 태도에서는 분화수준에 따른 판단의 극화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판단자의 분화수준×진술의 평가적 속성간의 상호작용만이 유의하게 나와 [ $F(1,207)=3.07, p<.05$ ], 높은 분화수준에서는 낮은 분화수준에 비하여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여 판단의 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자의 태도와 태도주제가 기술차원에서 불일치 할 때 나타나는 판단의 역전이 판단자의 차원분화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복진술에서 사복지지 태도의 결과와 사복진술에서 교복지지 태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에서 모두 판단자의 분화수준이 낮을 때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의 평균점수에서 이미 판단의 역전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두 경우에서 모두 부정적 진술을 긍정적 진술보다 더 태도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진술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복진술에서 사복지지 판단자의 분화수준과 진술의 평가적 속성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도에는 못 미치나 그 추세는 예언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F(1,49)=3.95, p<.1$ ], 사복진술에서는 교복지지 판단자의 분화수준과 진술의 평가적 속성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와 [ $F(1,116)=5.38, p<.01$ ] 이 추세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판단척도의 범주에 따라 판단자들의 반응분포를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는 교복진술에 대한 사복지지 태도의 분화수준별 반응분포이며, 그림 3은 사복진



[그림 2] 사복지지 태도 집단에서 교복진술에 대한 판단의 범주별 반응빈도



[그림 3] 교복지지 태도 집단에서 사복진술에 대한 판단의 범주별 반응빈도

술에 대한 교복지지 태도의 반응분포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분화수준이 낮은 판단자는 높은 판단자에 비하여 판단의 역전을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히 볼 수 있다. 높은 분화수준 판단자에 비하여 낮은 분화수준 판단자에게서 긍정적 진술을 반대하는 것으로, 부정적 진술은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판단의 역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태도판단 연구에서 나타나는 판단의 역전 현상이 실험자의 실험 조작상의 과오에 기인하기 보다는 판단자가 주어진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지각을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원분화 수준이 낮은 판단자는 주어진 태도진술의 의미에서 기술적 의미는 무시하고 평가적 의미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한다.

이 사실은 판단자의 차원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과제를 검토해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의 분화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직교과제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양식은 주로 평가차원에서의 오류로 구성되었다. 앞에서 예로 든 단정하게 보인다(P+), 활동이 불편하다(P-), 개성을 살린다(A+), 탈선하기 쉽다(A-)의 4가지 진술 중 교복착용 현상과 사복착용 현상을 각각 2개씩 고르게 하였을 때, P+와 P-를 교복착용 현상으로 A+와 A-를 사복착용 현상으로 분류하면 정답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범하는 대부분의 오답은 P+와 A+를 교복착용 현상으로 P-와 A-를 사복착용 현상으로 분류하거나, 이와 반대로 전자를 사복착용 현상으로 후자를 교복착용 현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들은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는 무시하고 평가적 의미만을 쫓아 교복착용지지 태도에서는 긍정적 진술들을 교복착용 현상으로, 분류하고, 사복착용지지 태도에서는 긍정적 진술들을 사복착용 현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주어진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를 평가적 의미에 의하여 오염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태도판단에 관한 이론들도 바로 이것을 문제삼았다. 동화대비 이론은 태도진술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서 그 진술에 대한 판단자의 태도가 개입한다는 것으로 판단자가 주제에 대하여 자아관여가 되어 있을수록 주어진 진술에 대한 찬반의사도 뚜렷해지며 따라서 그 진술의 판단에서 찬반 의사에 의한 오염도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 강조효과이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주어진 진술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인가 반대하는 내용인가 하는 진술 내용의 찬반속성을 초점차원으로, 이 진술에 대하여 판단자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판단자의 태도를 말초차원으로 설정하여 두 차원사이의 상관 이 높을수록 초점차원에서의 판단이 말초차원에 의하여 오염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 이론에서는 판단자의 태도가 어떻게 객관적 판단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이 연구에서의 결론은 판단자들이



지시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실험자의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지시를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므로써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Romer(1983)도 이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시에 대한 오해’를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양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것을 실험자의 실험조작상의 잘못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는 이 ‘지시에 대한 오해’를 판단자들이 주어진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서로 독립된 것으로 분화하여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지시에 대한 오해’ 그 자체가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양식임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태도판단 연구에서 사용하는 태도진술의 함축된 의미가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로 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의 극화현상을 해명하려 하였다. 먼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에서의 극화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기존의 판단연구에서 사용한 태도진술들이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볼 때 한쪽 극단에 있는 것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구성된 진술들을 판단할 때 기술차원에서 대립되는 찬성태도를 가진 판단자와 반대태도를 가진 판단자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판단에 임하게 된다. 찬성 태도에서는 판단자의 태도와 태도진술들이 기술차원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판단자가 자신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판단에 임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 태도에서는 판단자의 태도와 태도진술이 불일치 하기 때문에 판단자가 자신의 태도를 포기해야만 실험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찬성태도는 판단의 극화를, 반대태도는 판단의 역전이 나타날 것을 가정하였다. 실험 I에서 이 가정이 지지되었다. 태도진술이 기술차원에서 어느 한 쪽 극단으로만 치우쳐서 선정될 때 찬성태도는 판단의 극화가, 반대태도는 판단의 중화가 나타났다. 또한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판단의 극화는 주어진 태도진술이 기술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판단자의 태도가 같더라도 주어진 진술이 기술차원에서 찬성쪽으로 구성될 때는 판단의 극화가, 반대쪽으로 구성될 때는 판단의 중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태도판단 연구에서 판단에서의 극화가 찬성태도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립태도이며, 반대태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진술이 기술차원에서 찬성쪽의

내용으로만 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동안 태도판단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의 주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태도 주제 환각제(Eiser, 1971)는 ‘환각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며, 기술차원에서 이와 대립하는 ‘환각제를 복용치 않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은 아니다. 또한 ‘흑인의 사회적 지위’(Hincley, 1932 ; Zavalloni 와 Cook, 1965)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것과 기술차원에서 대립되는 ‘백인의 사회적 지위’를 묻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기술차원에서 한 쪽 극단만을 대표하도록 설정된 태도주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태도진술의 내용도 자연히 그 차원에서 한쪽 극단으로만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에서의 극화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이 실험에서 사용한 태도진술들이 기술차원에서 한 쪽 극단만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실험Ⅱ의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이 실험에서는 판단자가 주어진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판단의 극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즉, 앞의 실험에서는 태도진술의 구성에서 차원분화 수준이 판단의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반면에, 이 실험에서는 태도진술에 대한 판단자들의 차원분화 수준이 판단의 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의 결과는 판단자의 차원분화 수준이 낮을 때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에서의 극화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두 실험의 결과로부터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상관을 갖게 될 때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에서의 극화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실험Ⅰ에서의 결과는 태도진술의 구성에서 기술적 의미는 무시하고 평가적 의미만을 쫓아 진술들을 선정함으로써 판단의 극화가 야기된다는 것이며, 실험Ⅱ에서는 판단자가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는 무시하고 평가적 의미만을 가지고 진술들을 분류함으로써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이 결론은 Eiser(1971)의 강조효과 이론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는 태도진술의 찬반속성을 초점차원으로 판단자 자신의 찬반 입장을 주변차원으로 놓고 이 두 차원이 서로 상관될 때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같은 생각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점은 그가 판단의 극화를 태도진술의 찬반속성과 판단자의 태도사이의 상관을 가지고 설명하려 한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태도진술의 기술적 속성과 평가적 속성사이의 상관을 가지고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 판단자의 태도는 판단의 극화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찬성, 중립, 반대의 순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다. 반면에 판단의 극화가 일어나는 가 혹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태도진술의 두 속성사이의 상관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판단이 극화하는 현상과 이 극화가 찬성, 중립, 반대 태도의 순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별개의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험 I의 결과에서도 판단의 극화효과가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판단자의 태도와 태도진술이 기술차원에서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실험 II에서 판단의 극화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하여 오염되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래의 태도판단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판단자의 태도가 작용하여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단의 극화는 Eiser의 생각대로 주변차원인 판단자의 태도가 초점차원인 태도진술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판단자의 태도가 이같은 작용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태도진술의 두 속성간의 상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이며 자아편여가 높은 태도일수록 태도진술의 두 속성사이의 상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은 Sherif, Sherif 및 Nebergall(1965)의 연구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높은 자아편여 수준의 판단자는 그의 태도가 극단적이 되며 따라서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하여 크게 오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판단의 극화가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가 상관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생각은 판단자의 태도가 어떻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능케 한다. Eiser는 초점차원과 주변차원의 상관을 통하여 판단의 극화를 해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변차원이 초점차원에서의 판단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판단자가 태도진술의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할 수 없을 때 기술차원에서의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실험자의 지시도 따라서 이해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지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차원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판단자는 태도진술의 기술차원에서의 의미를 묻는 실험자의 지시를 그 진술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사를 묻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판단의 극화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Romer(1983)의 판단의 극화가 판단자의 지시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는 판단자의 지시에 대한 이같은 오해가 실험자가 실험조작상에서 범하는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지시에 대한 오해 자체가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양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지시에 대한 오해 그 자체가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 작용하는 하나의 양식임이 드러났다.

이 지시에 대한 오해 그 자체가 태도진술에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의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판단자가 판단에서 그의 태도를 개입시켜 판단의 극화를 야기케 하는 하나의 양식인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이수원. (1984).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이 판단의 회귀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 연구*, 2, 114-132.
- 이수원 · 신현숙. (1986). 태도의 차원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간중.
- Eiser, J. R. (1971). Enhancement of contrast in the absolute judgment of attitude stat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10.
- Eiser, J. R. & Mower-white, C. J. (1974). Evaluative consistency and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49-359.
- HincRley, E. D. (1932). The influence of individual opinion on construction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83-296.
- Manis, M. (1960). The interpretation of opinion statements as a function of recipient attitud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 340-344.
-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s: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7, (4, whole No. 644).
- Romer, D. (1983). Effects of own attitude on polarization of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73-284.
- Shepp, B. E., & Swartz, K. B. (1967). Selective attention and the processing of integral and nonintegral dimensions: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2, 73-85.
- Sherif, M., & Hovland, C. I. (1961). *Social judg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Sherif, C. W., Sherif, M., & Nebergall,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Saunders, philadelphia and London.
- Tajfel, H. (1967). Value and the perceptual judgment of magnitude. *Psychological Review*, 64, 192-204.
- Zavalloni, M., & Cook, S. W. (1965). Influence of judges' attitudes on ratings of favorableness of statements about a social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43-54.

## ABSTRACT

### **Dimensional Structure of Attitude and Polarization of Attitudinal Judgment.**

**Lee, Soo-Won**

*Department of Education, Han Yang University*

On the assumption that attitude statements are differentiated into descriptive and evaluative dimensions, this study reexamines previous results that the more pro a judge's attitude, the more polarized his judgments of attitude statements.

In experiment I, it is revealed that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are due to the fact that only "pro" statements are selected. When both sides on the descriptive dimension ("pro" and "anti" statements) are included in attitude statements, differential polarization between pro and anti judges disappears. In experiment II, it is revealed that some subjects cannot differentiate descriptive dimension independently from evaluative dimension of attitude statements. These subjects misinterpret the task as the judgment on the evaluative dimension rather than on the descriptive dimension. As its result, the lower a subject's level of dimensional differentiation, the more polarized his judgments of attitude statements.